

06 _ 여성계 입장에서 보는 생명윤리

여성 건강 및 인권 보호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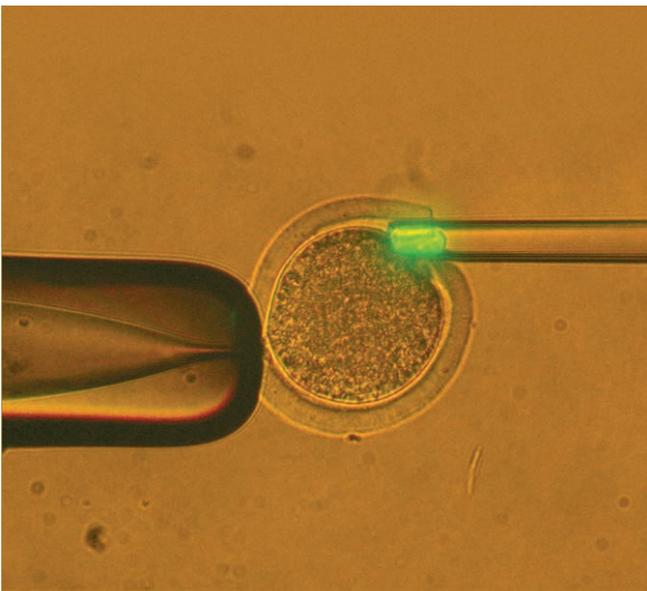
글 | 정은지 _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 brahit@hanmail.net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적 이익 및 난치병 치료에 대한 기대 속에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설 자리를 잃어왔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황우석 교수 영웅 만들기는 국가 주의와 맞물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어려운 경제도 해결하고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언론을 통해 유포된 상황에서 성체 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이나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시술의 문제 등을 얘기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여성인 인간배아 복제기술의 대상자인 동시에 수혜자

생명공학기술은 여성의 신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발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는 여성의 난자가 필요하며, 난자는 다시 배아를 생성한다. 이외에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불임클리닉의 인공수정시술, 대리모, 산전 유전자 검사 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생산기술이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과학 기술이 객관적이라고 믿고 전문가의 영역에 남겨진 동안, 기술은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여 우리의 신체로 점차 들어오고 있다. 인류를 위한 치료약을 위해 여성은 난자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를 부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는 생명공학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기술의 수혜자인 동시에 대상자로, 자신의 몸을 끝없이 침탈당하도록 내어 놓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지원 속에서 논의되었던 '싱싱한 배아' '신선한 난자' 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난자를 과배란을 통해 채취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없다고 외쳐온 것은 누구인가. 의료인이나 과학자 대부분이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의 부작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로 입증하라거나 피해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까지 하기도 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도 '배아가 생명인가'에 대한 논란에 집중되었을 뿐 여성의 난자 채취가 가져올 여성건강 및 인권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지는





지난 1월 4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 대표들이 서울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카스룸에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와 관련된 '난자채취 과정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난자 사용으로 윤리문제가 야기되는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않았다. 심지어 2004년 황 교수팀이 연구에 성공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난자와 체세포'만을 사용하므로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질병치료 목적도 사회구성원의 희생담보로는 곤란

생명공학기술은 질병의 치료 등 인간복리를 위해 연구되고 있지만 거대과학의 특성에 맞게 자본이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며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이전에는 수정란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하다가 2005년에는 여성의 난자를 이용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배아는 생명이지만 여성의 난자는 도구로 보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여성의 난자를 대상화하는 연구를 반대한다면 이종간교잡을 통해 인공난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동물과 인간을 교잡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생명공학연구를 위해 인간보다는 배아가, 배아보다는 여성이, 여성보다는 동물이 대상화되기 쉬울 것이다.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서 난자를 매매하고 대리모가 되는 현실과 한국의 난자가 일본에 수출되고 한국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재의 생명공학기술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빈곤층과 여성 등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의 입장은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성의 몸과 밀접한 난자나 배아관리까지 국익의 범주에서만 논의되거나 전문가들에게서 토론으로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난자나 배아관리 문제, 불임치료기술 문제, 대리모 문제, 맞춤형 아기탄생의 문제 등은 생명공학 기술의 대상자 및 수혜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는 여성의 건강 및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성 다수에게 여성건강 및 인권과 연관되는 생명공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생명공학기술이 선도적인만큼 여러 가지 논의 역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연구라 해도 사회구성원의 희생을 담보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한 계층이나 연령 성별의 희생을 담보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⑤



글쓴이는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부장을 지냈다.